


공동체 소식



**사순 제5주일**

주 하느님, 성자께서는 죽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셨으니,  
주님의 도우심으로 저희도 그 사랑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게 하소서.

3월 기도지향

- + 구역모임의 활성화를 위하여
- + 냉담가정을 위하여

본당 평협회

- 일시: 오늘 교중미사와 영화상영 후.
- 장소: 나자렛 관.

부활 대축일 맞이 본당 대청소

- 일시: 3/20(주일) 교중미사 후.

성주간 전례 안내

- 3/20(일): 오전 11:00, 주님 수난 성지 주일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기념식, 미사)
- 3/22(화): 오전 11:00, 교구 성유축성미사 (본당 저녁미사 없음)
- 3/24(목): 저녁 8:00, 주님 만찬 성목요일 (미사-가난한 이들을 위한 2차헌금, 발씻김 예절, 미사후 성체조배)
- 3/25(금): 오전 10:00, 십자가의 길 기도, 저녁 8:00, 주님 수난 성금요일 예절 (예루살렘 성지복구 위한 헌금, 십자가 경배)
- 3/26(토): 저녁 8:00, 예수 부활 대축일 성야 (빛의 예식, 미사-라이스볼 봉헌)
- 3/27(일): 오전 11:00 예수 부활 대축일

부활 대축일 전례꽃 봉헌 안내

- 내용: 전례부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단 부활전례 연습

- 일시: 주님 수난 성지 주일, 점심식사 후.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파 견
115	340	151	124

주일미사 복사

	시중 복사	향 복사
이번주일	문예나 요안나	안광민 야고보
	차민서 임마누엘	김준영 요셉
다음주일	문호진 안토니오	정병훈 보니파시오
	정예찬 미카엘	김준영 요셉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김명은 안젤라	김대연 요셉 장보혜 프란체스카
차주	김주연 세실리아	문석찬 요셉 백문주 엘리사벳

애찬 봉사자

금주	김경희, 김인자, 안혜진
차주	김명은, 한춘희, 안복선

헌금 봉사자

금주	김태중 예레미야, 문석찬 요셉
차주	정수한 베드로, 김대성 사도요한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성체	헌금	교무금
3/6	72명	354불	850불
이영민, 류기범, 홍순익, 김호원, 이내익, 정지현 (총 6세대)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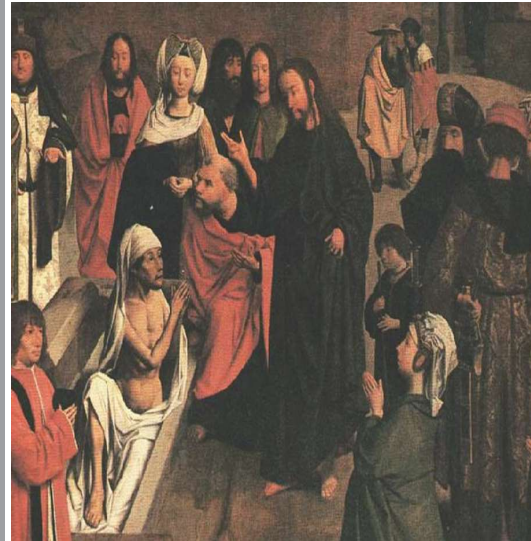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김대연 요셉 812.272.4770 moss0106@gmail.com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회장 홍순익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회장 김태중 예레미야  
M: 913.963.7521  
재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 오늘의 전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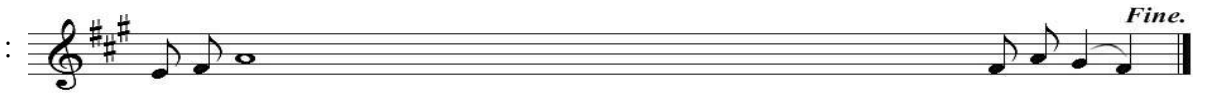
사순 시기의 막바지입니다. 지난 일들을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시작하시려는 새 일을 알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린 바오로 사도처럼 그분 부활의 힘을 알고 그분 고난에 동참합니다. 간음한 여자를 단죄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않기로 다짐하며, 우리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내달립니다.

### 성화해설

#### 라자로의 부활 (제라르 드 생장, 1480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요한 11,25-26) 부활과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다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이며 생명이기 때문이다. ‘라자로를 다시 살려내는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죽음을 다스리고 생명을 주는 분임을 드러내고 앞으로의 부활사건 또한 예고하신다. - 지영현 시문

제 1 독서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43,16-21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려 한다. 나의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리라.>

화답송 : 

- ◎ 주님이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 겹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3,8-14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죽음을 겪으시는 그분을 닮을 것입니다.>

복음환호송 : ◎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그럽고 자비로우니, 이제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너라. ◎

복음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8,1-11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 쉐 마

## 나의 이웃에게 자비의 얼굴을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 복음은 ‘올리브 산’을 단 한 번 언급하는데(요한 8,1), 오늘 복음이 그 대목입니다. 오늘 복음 시작에 예수님께서 올리브 산으로 가신 뒤 이른 아침 성전으로 올라가시는데, 이는 매우 상징적 의미를 지닙니다. 올리브 산은 예루살렘 성전 바로 동쪽 편에 위치해 있으며, 성전에서 보면 이른 아침 해가 뜨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아침 햇살이 올리브 산에서 성전으로 들어가듯 하느님 영광이 올리브 산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리라 믿었습니다(에제 11,23 43,2 등).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아침 해가 뜨는 시간 올리브 산에서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은 마치 하느님의 영광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예수님께서 앞서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성전은 하느님의 거처이고, 지성소에 있던 계약의 궤는 하느님의 어좌입니다. 앞서서 가르친다는 것은 권위를 상징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느님의 권위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율법 학자와 바리사이들은 이를 알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려고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데리고 찾아옵니다.

그들은 여인을 한가운데 세우고 묻습니다. 모세는 간음한 여인의 경우 돌을 던져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하십니다.

탈출 31,18을 보면 하느님께서 당신 손가락으로 돌판에 율법을 새겨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는 하느님이 써주신 돌 판을 가져다준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시는데, 예수님이 바로 하느님의 뜻을 직접 쓰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모세가 아니라 하느님 자리에 계신 분임을, 하느님의 아들로써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임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쓰셨다는 말을 세 번에 걸쳐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계속 다그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러자 나이 많은 사람들부터 하나씩 떠나고 여인과 예수님만 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겠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써주시는 가르침은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며, 죄인을 단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용서하고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파견되신 분이 라는 것 말입니다. 또한, 하느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어기는 죄인을 모조리 없애고 벌주기 위함이 아니라, 경계하고 경계하여 하느님만을 참으로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었음을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느님의 가르침을 자기가 생각한 바에 따라, 자기와 반대하는 이를 비판하려는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여인이 아무런 죄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여인은 분명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 그 여인의 죄를 이용하려 들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죄를 통해 모두의 죄가 드러나게 만드십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스스로의 죄를 자각하게 만드십니다.

자비의 희년에 지내는 사순시기가 막바지에 다다릅니다. 다시 한 번 남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고백합시다. 그리고 교황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입고 있는 하느님의 자비를 기억하며, 이웃에게도 자비의 얼굴을 드러내도록 합시다. 우리 모두가 자비의 얼굴을 지니게 될 때 세상은 하느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 엄철호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성서신학 교수)

# 주춧돌

## 솔로몬의 후계자가 된 르하브암 왕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백성들에게 ‘지혜의 왕’으로 알려져 있고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임금입니다. 솔로몬은 특히 이스라엘과 인근 나라들과 평화롭게 지내고, 외교에도 많은 힘을 쏟아 이스라엘 왕국의 전성기를 이룩했지요. 솔로몬은 정치, 외교, 경제 모두를 잘하는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이 솔로몬에게 진노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1열왕 11,1-13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은 츠레다 출신 에프라임 사람으로 힘센 용사였습니다. 솔로몬은 예로보암이 일하는 것을 보고 그를 요셉 집안의 모든 강제 노동의 감독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때 예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가다 길에서 실로 사람 아히야 예언자를 만났습니다. 아히야 예언자는 자신이 입고 있던 새 옷을 열두 조각으로 찢으며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예로보암을 죽이려 했나요?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1열왕 11,26-40

솔로몬의 아들 르하브암은 스킴으로 갔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스킴에 모여 그를 임금으로 세우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임금을 피하여 이집트로 달아나 있던 예로보암은 그곳에서 이 소식을 듣고 이집트에서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그를 불러내니, 예로보암은 온 이스라엘 회중과 함께 르하브암에게 가서 말하였습니다. “임금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멍에

를 힘겹게 하셨습니다. 이제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지우신 힘겨운 일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이후 어떤 일로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었나요?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1열왕 12,1-19

르하브암 왕의 미련한 행동은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왕 다윗이 크게 넓혀 놓았던 영토를 남과 북으로 갈라놓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르하브암 왕은 왕권을 회복하려는 생각만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쪽인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압하려고 했습니다. 르하브암 왕은 집권 후 처음 3년 동안은 성실하게 통치했으나, 왕권이 튼튼해지자 교만해져 주님을 배신하고, 이방인 신의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참배하던 백성들도 하느님을 버리고 덩달아 우상숭배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도 다행히 르하브암 왕이 죄를 뉘우쳤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부유하고 성공한 삶을 살 때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 글 허영엽 신부 | 그림 임의준 신부 -

# 복음묵상

## 심지어

- 돌 한 개도
- 손가락질도
- 심지어
- 눈빛도
- 다른 이에게로 향한다면
- 그 셋은 다름이 없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요한 8,7)

- 임의준 신부